

영망진창 우상 쟁탈전

1 찬양과 기도

- 찬송 : 새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
- 기도 :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.

2 성경본문 (우리말성경)

·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탈취함

14 그리고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. "이들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.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." **15**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길을 돌아서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사람인 그 청년에게 가서 인사했습니다. **16** 무장한 단 지파 사람들 600명이 문 입구에 섰습니다. **17** 그러자 그 땅을 정탐하러 갔었던 다섯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 들었습니다. 제사장은 무장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문 입구에서 있었습니다. **18**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 들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. "무슨 짓이냐?" **19**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. "조용히 하시오.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돼 주시오.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,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,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?" **20** 이에 제사장은 마음이 기뻐했습니다. 그는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갔습니다. **21** 그들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. 아이들과 가축들과 소유들을 그들에 앞세웠습니다.

· 라이스를 무력으로 정복함

22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어졌을 때 미가의 집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 단 사람들을 가까이 쫓아갔습니다. **23** 그들이 단 사람들을 부르자 단 사람들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말했습니다. "사람들을 이끌고 오다니 무슨 일이냐?" **24** 그가 말했습니다. "내가 만든 신들과 내 제사장을 너희가 데리고 가 버렸으니 내게 무엇이 더 남아 있느냐? '무슨 일이냐?'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?" **25** 단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. "네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. 그렇지 않으면 성질이 거친 사람들이 네게 가서 네 목숨과 네 가정의 목숨을 빼앗을지 모른다." **26** 그러고 나서 단 사람들은 그들이 가던 길을 갔습니다. 미가는 그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뒤돌아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**27** 그리하여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갔습니다.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. **28** 그 성읍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고 그 성읍이 또 베드르홉 근처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. 그리하여 단 사람들은 성읍을 다시 짓고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. **29**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은 원래 라이스였습니다. **30** 거기에서 단 지파는 우상을 세웠습니다. 그 땅이 점령당할 때까지 모세의 손자요, 게르숨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. **31**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기들을 위해 세워 두었습니다.

3 묵상하기

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미가가 세운 신상에 신령한 힘이 있을 거라 믿고 집착했던 단 지파(14~17절),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주저 없이 따라나선 제사장의 모습(19-20절)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. 한편, 뒤늦게 신상을 찾으러 쫓아간 미가가 그들의 기세를 보고 물러설 만큼(26절) 단 지파는 거칠고 무자비했습니다. 정작 정복해야 했던 아모리 땅에서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밀려났으면서 (삿 1:34) 약한 상대인 라이스 땅은 잔인하게 정복했던 것입니다. 게다가 정복한 땅에 우상을 세워두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까지 했습니다(31절).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, 그분을 찾는 마음도, 영적 분별력도 없었던 이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적 타락의 모습입니다.

4 적용하기

제사장을 세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였지만, 사실은 흠쳐온 우상에게 위안을 얻고 있던 단지파의 모습(31절)이 참 안타깝습니다. 결국 하나님은 형식에 불과할 뿐 그들이 진짜 섬기는 대상은 우상이었습니다. 마치 돈, 명예, 인기 등 좋아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따르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며 예배하는 모습과 같습니다. 단 지파 사람들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, 영적 타락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아야 합니다.

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(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)

- ① 레위 제사장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미가를 버리고 단 지파를 따릅니다. 요즘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 기준은 나의 유익인가요, 하나님의 말씀인가요?
- ②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? 단 지파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면서, 혹시라도 벌 받을까 두려워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은 아닌가요?

6 기도하기

-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.
- ② 아무것도 아닌 헛된 세상의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게 해주세요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-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.

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세운 단 지파

1 큐티하기 전 기도

- 찬송 : 새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
- 기도 :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.

2 성경본문 (우리말성경)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?

27 그리하여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갔습니다.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.
28 그 성읍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고 그 성읍이 또 베드르홉 근처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. 그리하여 단 사람들은 성읍을 다시 짓고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.
29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은 원래 라이스였습니다.
30 거기에서 단 지파는 우상을 세웠습니다. 그 땅이 점령당할 때까지 모세의 손자요, 게르숨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.
31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기들을 위해 세워 두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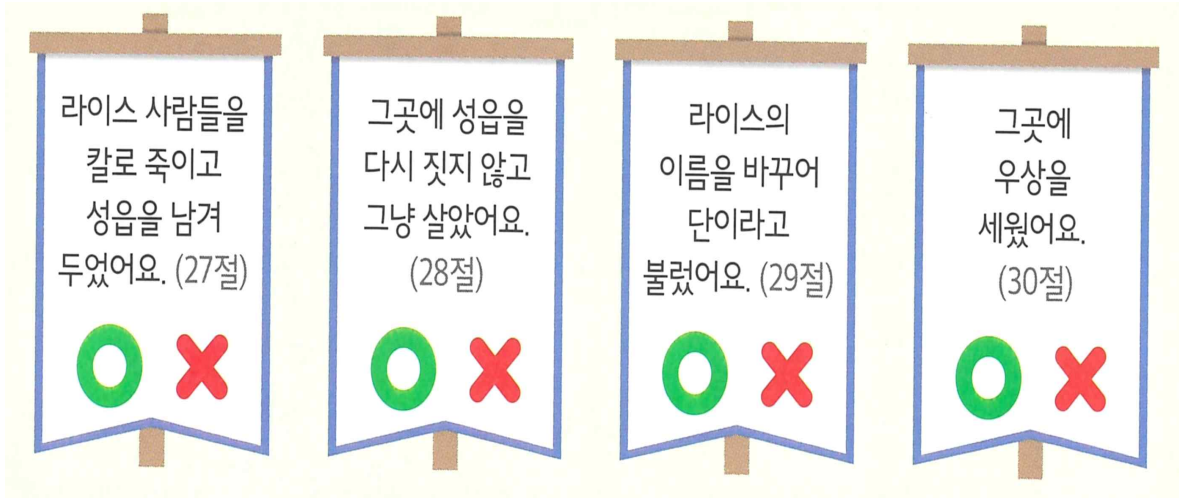
• 궁금 사전

- * 교류: 생각, 문화, 경험 등을 서로 주고받는 것
- * 점령: 힘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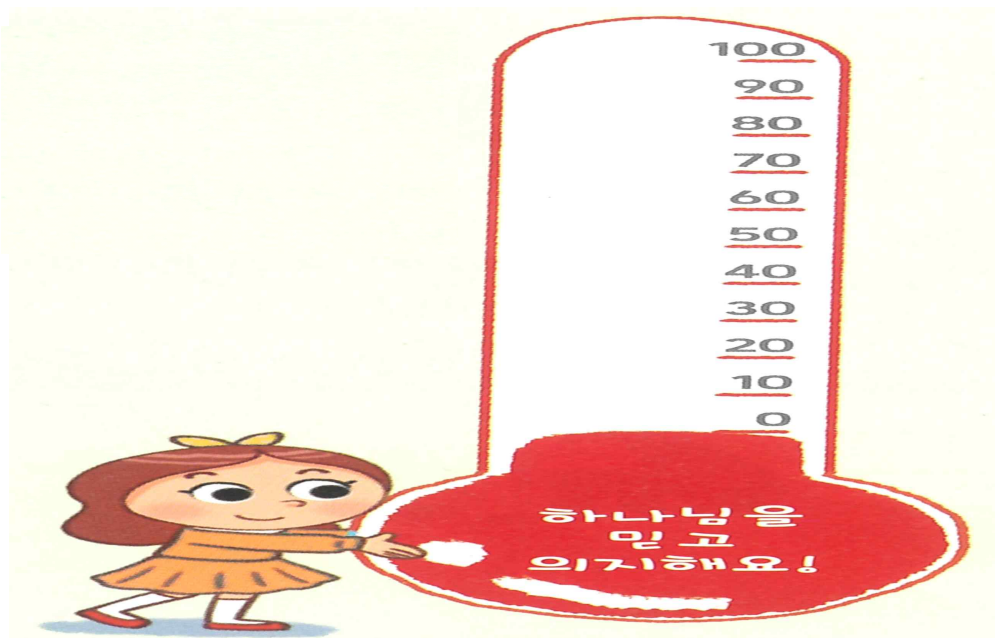
• 말씀 씨앗

단 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우상을 빼앗은 다음,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도착했어요.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의 이름을 '단'으로 바꾸었어요. 단 지파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차지했어요.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세웠어요.

3 말씀 새싹 - 단 지파는 라이스를 차지할 때 어떻게 했나요? 맞으면 O,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.



5 말씀 열매 - 우상을 세운 단 지파처럼,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는 않나요?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 마음이 몇 도인지 아래 온도계에 표시하세요.



•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

단 지파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차지한 후 우상을 세웠어요.

6 기도하기

하나님,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세요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